백금남 소설

아디카야의 검

20 뉴델리에서 며칠 ②



▶한줄 요약
언제부턴가 지안 금어가 혼신을 다해 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부처님 곁에 제 아들을 그려 넣었다는 '쌍불도'였다.

부처님 옆에 자기 아들 그린 지안

3 이 분 마르기 전에 돌아오소서

모르겠다는 듯이 난타가 눈을 치떴다. 그러자 아나율 사형이 몸을 돌리며 이런 말을 하였다.

-너는 이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 신심을 내었지만 우리는 오로지 지옥에 가기 위해 수행하고 있다.

-무슨 소립니까?

-모름지기 수행인은 지옥에 가기 위해 서원을 세운다는 말이다.

-아니 지옥에 가기 위해 서원을 세우다니요?

-진정한 수행승이라면 구해야 할 중생은 지옥에 있을 게 아닌가. 지옥을 천상으로 전환하는 작업. 그것이 곧 승이 할 일인데 너는 이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 신심을 내고 있으니 어찌 그렇지 않겠느냐.

난타는 그만 다시 절망하고 말았다.

어느 날 붓다는 그런 난타를 위로해 주기 위해 그를 찾았다. 붓다는 난타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난타야, 수행인이 원적(圓寂)을 구함으로 욕심을 없애는 것은 지옥과 천상이 동일선상에 있을 때이다. 진정한 붓다에게는 천상과 지옥이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로지 마음이 있을 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보여준 천상과 지옥은 네 마음의 환영이며 너 자신 역시 우주의 마음일 뿐이니라. 아직은 믿어지지 않을 것이지만 그걸 깨달으면 아라한의 경지에 오를 것이니라.

-!

-우리 안에는 세 가지의 때가 있다. 음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그것이다. 이것을 버려야 하고 이것을 멀리하는 법을 닦고 배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사의 이치를 먼저 깨달아야 하고 우주의 섭리를 깨달아 원만을 성취해야만 한다. 모든 것을 의심하여라. 내가 경험하여 깨달을 때까지, 내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마저 의심하여라. 그러면 언젠가 해답을 얻어 자연히 니르바나에 이를 것이니라.

붓다가 말하는 동안 난타는 눈물을 흘렸다. 붓다의 거룩한 자비심에 북받쳐 오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비로소 무엇인가 알 것 같았다. 서서히 어둠이 걷히고 한 줄기 빛이 가슴속으로 흘러들었다. 그 길로 난타는 마음을 다잡았다. 참된 수행인으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다.

뉴델리에서의 며칠 ③

빗소리가 잠자리를 어지럽혔다. 밤새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글을 읽었다. 때로는 글자를 조립하고 문장을 만들어 이해를 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눈이 침침해 시계를 보았더니 벌써 새벽이었다. 글의 양을 가늠해 보면 금방 읽을 것 같은데 한 문장을 두세 번을 읽어야 하니 량이 줄지를 않는다.

아침. 창가로 가 밖을 내다보았다.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글 때문일까? 이상한 감상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으므로 우산을 찾아 쓰고 밖으로 나갔다. 멀리 보이는 산기슭을 향해 걸었다. 도심을 벗어나자 산기슭이 나타났다. 빗줄기는 고색창연한 종려나무의 무성한 숲을 때리며 멈출 줄을 몰랐다. 종려나무 원통형의 거친 털들의 모습이 엉긴 내 마음 속 같다. 어린 날 초등학교 한 편에 있던 종려나무의 어린잎을 우산 대신 쓰고 집으로 돌아가던 때가 떠올랐다.

그곳을 벗어나자 황갈색의 덤불숲이 깔린 계곡이어서인지 키가 큰 노란 낙엽송 밑이 음습해 보였다. 비안개에 젖은 산정이 운치 있게 계곡을 물들이며 흘러가고 있었다. 때때로 노쇠한 종려나무 숲 너머로 비에 젖은 새들이 이리저리 건너뛴다. 좀 전까지 읽었던 글들이 실타래처럼 풀리며 흘러나왔다.

점차 비가 멎었다. 비가 멎자 공기가 상쾌하다. 나는 가끔 산정을 향해 고개를 들곤 하였다. 내린 비 때문인지 산정에도 맑고 신선한 기운이 감돌았다. 녹회색, 암적색, 보라색 그리고 백색과 회색 등이 서로 뒤엉켜 범치 못할 무늬를 이루며 신령스러운 기운으로 뒤덮였다.



점차 햇살이 검은 구름장을 헤치고 얼굴을 내밀었다. 사나운 빗소리가 사라져버린 주위는 섬뜩할 정도로 깊은 정적 속에 묻혀들었다. 무한한 공간 속에 투명한 빛만이 신선하게 뒤덮여 있다는 그런 느낌이었다. 검게 그을린 빛으로 잔뜩 뒤덮였던 산언덕도 그 비로 인해 생기를 찾았는지 맑고 투명한 빛으로 되살아나고 있었다. 모든 것은 그렇게 비가 머물다 가 버린 공간 속에서 뚜렷이 떠올라 있어 마치 한 폭의 미세화를 보는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산을 등지고 한참을 걸었다. 걷다 보니 일전에 찾아갔던 천추사원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왜 여기로 온 것일까? 그 글 때문이라면 온 김에 조실스님이나 만나보고 갈까? 조실스님에게 글을 쓴 사람에 대해 무엇이든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잖은가.

갑자기 찾아온 나를 보며 조실스님은 말이 없었다. 두 사람 앞에 놓인 차가 식었다. 한참이 지난 후에야 나는 이석원에 대해서 다시 물었다. 조실스님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내가 이석원에 대해 끈질기게 물어대자 조실스님이 비로소 시선을 들었다. 그는 귀찮다는 표정을 숨기지 못하며 혹시 쌍불도(雙佛圖)란 그림에 대해서 들어보았느냐고 물었다.

-쌍불도?

내가 되물었다.

-그런 그림이 있소이다.

-쌍불도라면 부처님이 두 분 그려졌다는 말인가요?

-맞소. 지안 금어가 언젠가부터 혼신을 다해 그리는 그림이었지.

-그래요?

내가 확인하듯 물었다.

-그렇소. 본시 본존 곁에는 사리자존자나 문수보살 등 협시불이 조그맣게 그려지기 마련인데 지안 금어는 협시불 대신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불위로 또 한 분의 부처님을 그린 것이오.

-같은 불위라면?

-쉬운 말로 석가모니 부처님과 똑같은 과위로 또 한 분을 더 그리고 있었다는 말이오.

순간 이지안 금어의 사건 현장에서 조실스님이 보았다던 타다만 그림이 생각났다. 거기 있었다는 붓다의 존상. 그 곁의 뼈만 남은 팔뚝. 그럼 그 임자가 쌍불의 주인공?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교도 여느 종교와 마찬가지로 그 층이 있는 법이오. 출가하려 하지만 의발(衣鉢)을 얻지 못하고 절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행자, 출가하여 십계를 받았으나 구족계를 받기 전이면 사미, 구족계를 받았다면 비구, 수행이 깊다면 보살, 수행이 지극에 이르렀다면 붓다, 쉽게 나누어 본 것이오만 깨침의 정도인 각(覺)과 분(分)이 모자라 그런 불위가 생겨났고 그것이 불위의 원칙인데 어떻게 쌍불이 있을 수 있겠소. 부처님과 비교되는 인물이 있다니. 그런데 쌍불을 그려 놓고 있었다는 거요.

-그럼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 누군가 물었소.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불위로 그려진 또 한 분의 부처님은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 양반은 서슴없이 제 아들을 가리켰소.

-예?

-이석원이 말이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 귀를 의심하여 벼락 치듯 물었다.

-아들 이석원이를 부처님과 같은 위치에 놓았다는 말이오. 그러니까 미쳤지.

-금어스님이 부처님 곁에 자기의 아들을 그려 놓았단 말입니까?

조실스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제 아들이 부처라는 거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침을 꼴깍 삼키고 물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 게 아니겠소. 사람들이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다가 물었다고 하오.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까 그 옛날의 난타 비구가 이 세상에 다시 왔다는 것이오. 사람들이 어이없어하며 다시 물었소. '난타 비구가 어디 어디 있느냐?' 그러자 그가 자기 아들을 가리키며 말했다고 하오. '내 곁에 있지 않은가.' '그대의 아들이라고?' '그렇다.' '미쳤군.' 그랬는데 다시 누군가 물었다고 하오. '그럼 그대는 전생의 누구인가?' 아들의 아비이면 전생의 슛도다나왕(석존의 아버지)이 되고 스승이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냐 그렇게 물은 말이었지.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오.

-뭐라구요?

-환생한 내 아들에게 물어보라.

-네? 환생?

그러잖아도 윤회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있었는데 그가 그렇게 대답해 버리자 나는 당황해서 다시 물었다.

-환생이라니요?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다고 하오. 문제는…. 그 후요.

-그 후?

-지안 금어가 쌍불도를 그려 자신의 방에 걸고 나자 이번엔 아들 이석원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던 거요.

-이상한 행동이라니요?

-아들이 벽을 보고 돌아앉아 버린 것이오.

-벽을 보고 돌아앉다니요?

-식기를 끊고 눈을 감고 돌아앉았다는 말이외다.

-그러니까 선정(禪定)에 들었다 그 말입니까?

그제야 말을 알아들은 내가 물었다.

-그렇소. 그런데 그때부터 아비가 거리로 내려가 그림을 팔아서는 아들을 먹여 살리기 시작하는 것이오. 이미 여권 기간이 지났는데 말이오. 한국으로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길래 양식과 용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려나 하고 한 번인가 빠졌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요.

-그래서요?

-결국 아들이 피를 토하고 널브러졌소. 식기를 끊고 열흘이나 벽을 보고 앉아 있었다고 하오.

-그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실스님이 잠시 사이를 두자 내가 물었다.

-어떻게 어떻게 아들을 살렸는데 지안 금어가 불에 타 죽은 것은 그 후 얼마 되지 않아서였소. 사람들이 아들 이석원에게 물었다고 하오.

-뭐라구요?

-아버지를 왜 죽였는가? 사람들은 아들이 아비를 죽였다고 생각한 것이오.

-그래서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오. '화중연화(火中煙花)가 아니라 화중생연(火中生蓮)이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의 말 흉내를 제대로 낸다고 생각하며 내가 물었다.

-한 줌 연기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불 속의 꽃이 되었다고 말이오. 사람들이 재차 물었다고 하오. '스승인 아버지를 왜 죽였나?'

-그랬더니요?

-'나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

조실스님이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듯이 또 말했다. 말에 멋을 부릴 줄 모르는 늙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이외에도 말 흉내를 제대로 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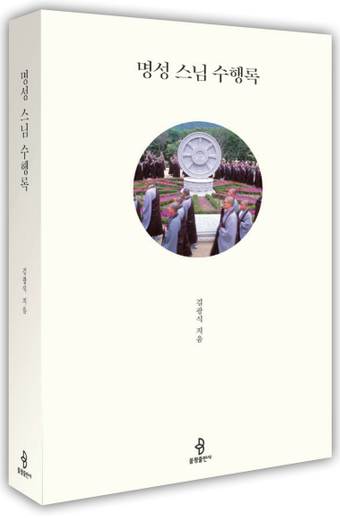
-'그럼 누가 죽였는가?' '부처지 누구이겠는가?' '부처라니? 부처가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나?' '그자가 사람만 죽이겠는가. 천지 만물이 그자 안에 있다. 공자가 칼 한 자루 지니고 조선으로 건너오면 조선이 망했을 것이다. 세상이 그의 사상에 갇혀 있다. 그를 죽이지 않고 사는 방법이 있겠는가?' 〈계속〉

"명성 스님의 일생은 그 자체가 기념비적인 생애이다"



한국 현대 비구니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명성 스님!
명성 스님의 생생한 구술과 회고로 집대성한 삶과 수행 이야기,
그리고 한국 비구니사를 증명하는 증언사료집!

명성 스님 수행록



올해 세수(世壽) 94세인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은 한국 현대 비구니사의 산증인으로서 현재 조계종 비구니 6,000여 명 가운데 2,200여 명을 길러낸 주역이다. 이 책은 명성 스님이 자신의 일대기를 직접 회고하고 서술한 증언 자료집이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사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스님의 생 자체가 한국 근현대 비구니 역사를 증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부친인 관응 스님을 비롯해 탄허, 경봉, 법정, 광우, 묘엄 등 큰스님들과의 인연담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귀한 자료로 새겨진다.

김광식 지음 · 352쪽 · 25,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단 한 번의 역사에 던지는 단 하나의 질문!
'반도의 중심' 강화는 어떤 섬인가?

단군, 고려, 대장경, 병인양요, 전등사, 이규보
그리고 섬이 품어온 사람들까지 하늘·땅·사람·마음에 새겨진 이야기 속에서
반만년 역사 속 주연이었던 강화와 만나다!

강화도
나를 채우는 섬 인문학



늘 먹었던 먹거리, 보던 풍경,
찾았던 핫스팟 말고 다른 것은 없을까?
여행으로만 접근하기엔 너무 아쉬운 강화에는
도대체 어떤 매력이 숨어 있을까?
강화를 인문학으로 새롭게 접근한 이 책은
여행을 떠나기 전 설렘처럼 알고 있다고 믿었지만
잘 모르는 강화와의 색다른 만남을 예고한다.



노승대·김성환·강영경 외 12인 엮음 | 256쪽 | 20,000원